

공간투어

100년의 시간여행:

문화역서울

아트플랫폼

동작역서동

아트플랫폼

100년의 시간여행:

운다늘어

문화역서울284는 1925년 기차역 서울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철도가 언제 처음 놓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900년 건설된 제물포역과 서대문역을 잇는 경인철도가 최초의 철도예요. 180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발명된 지 거의 100년 만의 일이었죠. 문화역서울284 입구에서 “한국 철도 100주년 기념동판”을 찾아보세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지은 건물로 르네상스 양식을 차용한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붉은 벽돌과 청동색 돔, 그리고 양 옆 대칭으로 펼쳐진 건물의 형태가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같은 해 지어진 서울역의 첫 모습은 소박했습니다. 1900년 7월 “남대문정거장”으로 시작한 작은 역이었어요. 그 후 경부선(1905)과 경의선(1906)이 개통되고, 1925년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서울역(당시, 경성역)이 완공되었어요.



1960~7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용객 수가 증가하자 1988년 서울역 서측에 민자역사를 새로 지어 규모를 확장하였고, 2003년 현재의 서울역이 지어지며 다음 해 기차역을 이전하였어요.

그 후 이 건물은 2년간 복원 공사를 거쳐 2011년 문화역서울284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계입니다.

문화역서울284 정면에 자리한 이 대형 시계는 1925년 경성역이 들어설 때 함께 설치된 것으로 ‘파발마(擺撥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파발마는 지름이 약 160cm로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가장 큰 시계였답니다. 또한 전국의 철길을 잇는 시각 기준점으로서 서울역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지요.



파발마는 한국전쟁 기간의 3개월 정도를 빼고는 멈춘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1951년 1·4후퇴 때는 심지어 역무원들이 이 시계를 해체해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파발마를 과거로 돌려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1

중앙홀

안내방송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문화역서울284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중앙홀입니다.

중앙홀은 석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12개의 석재 기둥과 동쪽과 서쪽의 반원형 창, 그리고 상부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앙홀의 석재 기둥은 상부의 돔을 지지합니다.

근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영화에서 이 공간을 보셨을 거예요. 영화 <암살>(2015, 최동훈 감독)을 보셨나요? 영화에서는 의열단원들이 경성으로 잠입해 들어오는 경로로 이곳 중앙홀이 등장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1927년 1월 30일자 매일신보에는 의열단원이 경성역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온다는 첩보에 순사를 3배 증원해 감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정문 양 옆에 보이는 두 창구는 매표소예요. 기차 이용객들은 여기서 기차표를 끊은 다음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왼쪽으로 가면서 알려드리죠.



2

1·2등 대합실



기차표를 보여주세요. 여기는 1·2등 대합실입니다.

일종의 특실인 1·2등석 표를 끊은 승객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 좌석표를 구매하였다면 중앙홀 오른쪽에 있는 3등 대합실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1·2등 대합실은 3등 대합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반면 3등 대합실은 광장에서 누구나 직접 출입이 가능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1·2등 대합실은 고객봉사실로 3등 대합실은 예매 매표소 및 대합실로 사용하며 원모습이 많이 변경되었지만, 1925년 신성기념 사진첩을 근거로 복원해서 현재 원모습을 되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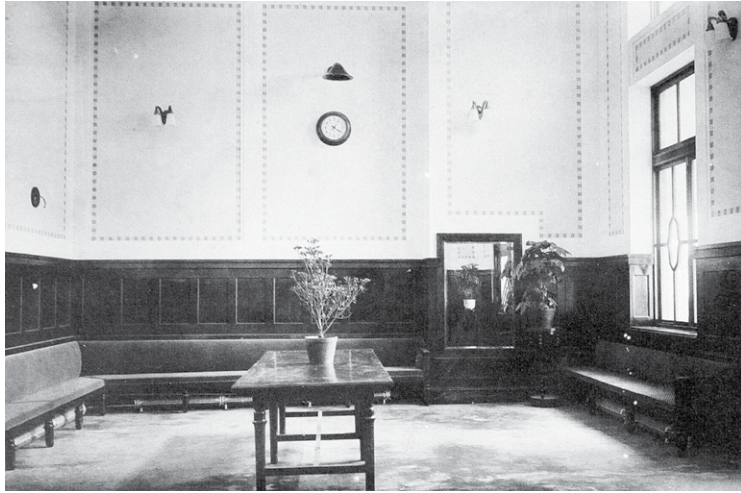
1·2등 대합실은 남성 승객만 사용하는 대합실이었어요.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지만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처럼 아직 전통 가치관이 남아 있던 시대였죠. 그럼 여성 승객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

부인 대합실

1·2등 좌석 표를
구매한 여성 승객을 위한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차라는 것을
처음 이용하며 무척 신기해했던 게
뭔지 아세요? 크디큰 쇠덩어리가
움직인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곳에 모여
있는 상황 역시 놀라웠답니다.
대합실은 이렇게 성별을 나눠
이용했지만 기차 안에서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시인
최남선의 「경부철도가」에서는
기차를 탄 세상이라 표현하며 사람
구별 없이 섞여 있는 새로운 세상의
풍경에 감탄했어요.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 다 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마한 탄 세상 절로 이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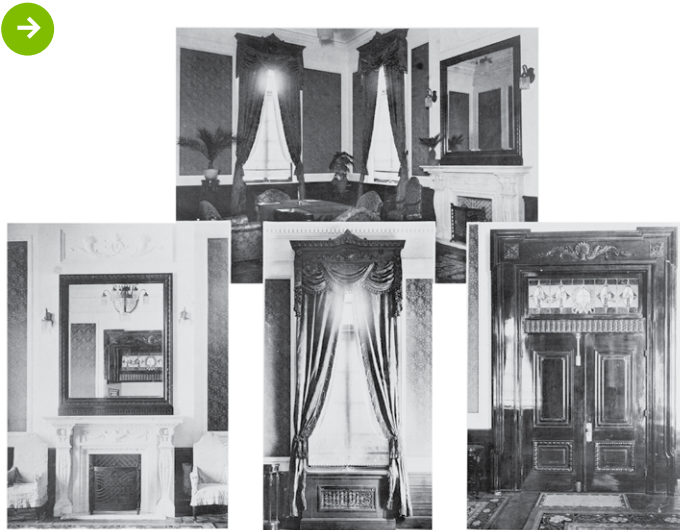
— 최남선, 「경부철도가」(1908)



4

귀빈실

대리석 벽난로와
방을 환하게 비추는 거울,
고급 장식 벽지로 마감된 벽
귀빈실에 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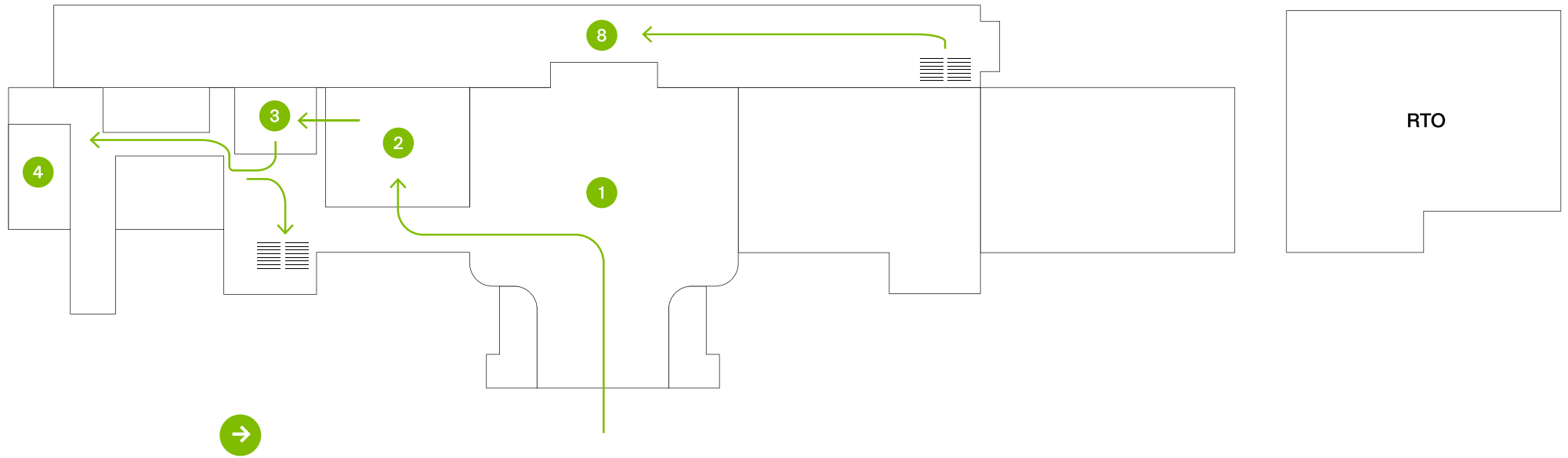
여러 장식 요소들은 귀빈실에 걸맞은
높은 격조를 연출합니다. 출입구 상부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준공 당시의 사진을
근간으로 새롭게 복원한 거예요.

귀빈실을 거쳐 간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명 인사들이었어요.
대한제국 황실과 국가의 귀빈, 역대
대통령이 귀빈실을 이용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귀빈실에 들렀던 사람 중에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도 있어요.
일본으로 가면서 경성역 기차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와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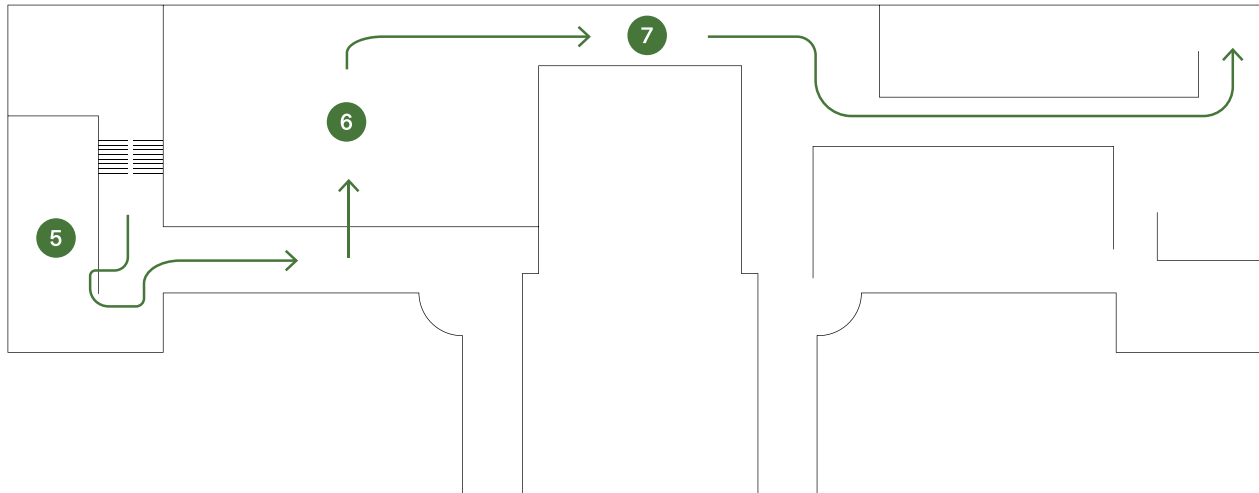
복도 쪽을 보시면 귀빈 출입구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중앙홀 출입구와
비교해 구조가 다른데, 이 형태를
포치라고 합니다. 상부에 지붕이 있어서
차에서 비를 맞지 않고 바로 내릴 수
있답니다.

귀빈실 맞은편에는 귀빈을 위한
식당 또는 귀빈을 수행하는 수행원을
위한 공간으로 귀빈예비실이 있고,
역을 지키는 역장이 직접 귀빈을
모셨기 때문에 역장실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1F



2F



- 1 중앙홀
- 2 1·2등 대합실
- 3 부인대합실
- 4 귀빈실
- 5 복원전시실
- 6 그릴
- 7 소식당
- 8 서측복도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볼까요?

5

복원전시실

복원전시실은 공간 전체가 전시물입니다.



당시의 시공 방법을 보여주는 흔적들도 볼 수 있는데요, 건물 구조, 나무로 만든 스위치 함, PVC라는 소재가 없던 시절에 전선을 천으로 감은 것 등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발소와 화장실로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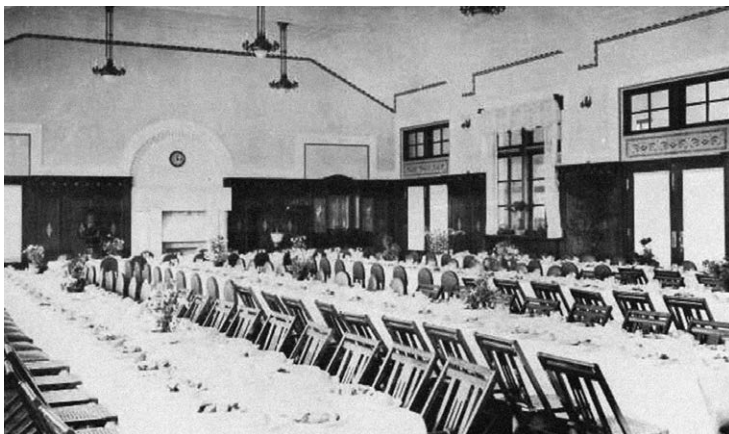
아직까지 이 건물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당시 건축가이자 도쿄대학교 교수였던 쓰카모토 야스시의 이름이 적힌 도면이 발견되었기에 그를 설계자로 추정할 뿐이지요.

일본의 도쿄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복원 과정에서 스위스의 옛 루체른역 사진이 발견되었어요. 루체른역이 30년 먼저 지어졌는데 그 모습이 쌍둥이처럼 닮았던 거지요. 안타깝게도 루체른역은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루체른역의 원래 모습을 보고 싶으면 문화역서울284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6

그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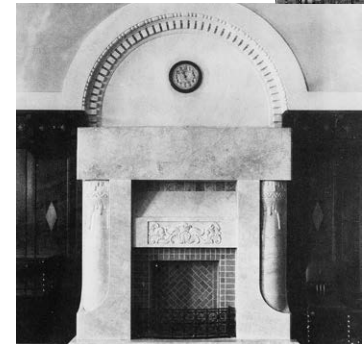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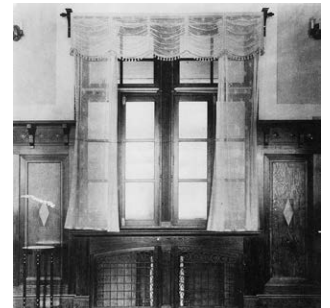
이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 '그릴'입니다.



10

그릴은 1925년 서울역 준공과 함께 문을 연 식당으로 광활한 홀과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은그릇과 은촛대, 40명의 요리사 등 실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용객은 고위 관료와 문화 예술인들이었어요. 해방 뒤에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과 최무룡, 김지미, 도금봉 등 1급 배우들의 발길도 잦았다고 해요. 유행의 첨단, 고급문화의 공간, 그릴!

이쪽 배선실로 들어와보세요. 음식 창구와 국내 최초의 음식용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층의 주방과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11

7

중앙홀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소식당

1925년 기차라는 것 자체가 못 사람들에게 근대의 속도감과 기술 문명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주요 매개체였어요. 그런 기차가 있는 기차역 안에서, 거기다 서양 음식을 맛볼 수 있던 레스토랑. 그릴은 그만큼 장소 면에서나 감성 면에서 무척 매력적인 공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릴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울 시내에 굴직한 고급 호텔과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적자 폭이 커지면서 1988년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 스테인드글라스를 보고 갈까요?

예전에는 돔 상부에 천창이 있어서 떨어지는 햇빛을 받으며 스테인드글라스가 화려하게 빛을 냈어요. 한국전쟁 후에는 태극무늬와 네 마리의 봉황, 무궁화 그림이 있었죠. 지금은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8

유리 너머로 기차를 보셨나요?

서촉복도



서촉복도는 승객들이 각 대합실에서 나와 기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가던 길이에요. 중앙에는 어디론가 뻗어 있는 계단을 볼 수 있는데요, 1988년 지어진 민자역사로 이어지는 계단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기차 이용량이 늘어나자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추어 역을 확장했어요.

이제 소곤소곤 조용히 역무원들의 사무공간을 지나 1층으로 내려가볼게요.

복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볼게요. 유리 너머로 기차를 보셨나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927년 서양화가 나혜석은 여성 최초로 유럽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바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1936년에는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 출전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문화역서울284 공간투어 어떠셨나요?

경성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을 거쳐
문화역서울284로 오셨습니다.
문화역서울284는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는 역으로서 여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공간투어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역서울284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화역서울284 공간투어 프로그램은
구 서울역에 담긴 역사와 생활
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상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과 참여 신청은
문화역서울284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서울284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04509

지하철
1호선 · 4호선 서울역 2번 출구
경의중앙선 서울역 1번 출구
(서울역 광장 방향)



문의
02-3407-3550, 3500

*

사진 제공
문화역서울284, 국가기록원,
서울역사편찬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eoul284.org
 facebook.com/seoul284
 instagram.com/culturestationseoul284
 youtube.com/seoul284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 서울 284